

“문재인, 노동안전 관련 정부 조사위 권고조치 무시”

금속·공공·건설 생명안전제도 개악 분쇄 결의대회...12월 7일 김용균 1주기 추모대회 참가 호소

제조업 건설 공공부문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이 문재인 정부의 노동안전정책 후퇴에 대해 비판 목소리를 높였다.

금속노조가 11월 22일 오후 공공운수노조, 건설산업연맹과 함께 서울 광화문 세종로공원에서 ‘정부 조사위원회 권고 사항 이행, 위험의 외주화 금지, 살인기업 처벌강화, 안전인력 확보, 원청발주처 책임 강화, 생명안전제도 개악 분쇄 총력투쟁 결의대회’를 열었다.

금속노조 현대중공업지부 허준혁 노동안전보 건부장이 연단에 올라 문재인 정부에 정부 조사위원회 권고사항 이행과 중대재해 기업처벌법 제정을 요구했다. 허준혁 현중지부 노안부장은 “조선업 조사위원회와 김용균 특조위가 산업안전보건법 등 관련법과 제도 개선을 권고했다”라며 “당시 문재인 정부는 조사위 조사 결과와 권고를 따르겠다고 약속했지만, 지금까지 아무 것도 이행하지 않고 있다”라고 지적했다.

2017년 삼성중공업 크레인 참사와 STX조선 폭발사고 이후 문재인 정부는 ‘조선업 중대 산업재해 국민참여조사위원회(이하 조선업 조사위)’를 구성했다. 2018년 태안화력발전소 김용균 노동자 죽음 직후, 민주노총 요구에 따라 ‘고 김용균 사망사고 진상규명과 재발 방지를 위한 석탄화력발전소 특별노동안전조사위원회(이하 김용균 특조위)’를 설치했다.

허준혁 노동안전부장은 “9월 20일과 26일 현대중공업과 대우조선에서 중대 재해로 하청노동자가 사망하는 등 올해도 조선소 산재 사망사고가 끊이지 않았다”라며 “문재인 정부가 조



선업 조사위원회와 김용균 특조위 권고만 빨리 지켰어도 많은 생명을 살릴 수 있었을 것”이라며 분통을 터뜨렸다. 허준혁 부장은 “문재인 정부는 하루빨리 조사위 권고를 따르고 살인기업 처벌을 강화하기 바란다”라고 힘주어 말했다.

“문재인 정부, 정부 조사위 권고도 안 지켜”

최준식 공공운수노조 위원장은 “문재인 대통령은 대선 후보자 시절부터 안전한 대한민국과 노동 존중을 약속했다”라며 “그 약속들만 제때 지켰어도 김용균은 죽지 않았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최준식 공공운수노조 위원장은 “정부가 할 일을 하지 않으니 결국 노동자가 투쟁할 수밖에 없다”라며 “오늘 모인 금속노조, 공공운수노조, 건설산업연맹이 힘을 모아 ‘안전하게 일할 권리’를 쟁취하자”라고 호소했다.

지난해 12월 태안 화력발전소에서 하청노동자로 일하다 사고로 목숨을 잃은 김용균 노동자의 어머니 김미숙 씨가 마이크를 잡았다. 최근

김용균 재단을 만들고 비정규직, 노동안전 관련 활동을 본격 시작했다.

김미숙 씨는 “지난해 12월 10일 아들이 죽기 전에 우리가 이렇게 위험한 나라에 살고 있는지 몰랐다”라며 “세월호 참사에 마음 아팠지만 내게 그런 일이 일어날 줄 전혀 생각 못 했다”라고 한탄했다.

김미숙 씨는 “원청은 우리 직원 아니다, 하청은 자카네 회사가 아니라면서 회피했다”라며 “심지어 시측은 개인 잘못으로 몰아갔고 특조위 조사 결과 이들은 업무수칙을 제대로 지켜 일한 것으로 밝혀졌지만 아무도 책임지지 않았다”라고 울분을 토했다.

김미숙 씨는 “노동자와 국민이 방관하면 일터에서 노동자 죽음의 행렬은 계속된다”라며 “12월 7일 김용균 1주기 추모대회에 많이 모여 위험의 외주화 금지를 함께 외치자”라고 호소했다.

금속노조, 공공운수노조, 건설산업연맹 조합원들은 ▲정부 조사위 권고 이행 ▲위험의 외주화 금지 ▲중대재해 기업처벌법 제정 ▲현장인력 충원 ▲작업중지 해제절차 완화 중단 등을 문재인 정부에 요구하며 이날 결의대회를 마무리하고 청와대 앞까지 행진했다.

금속노조, 공공운수노조, 건설산업연맹은 ‘위험의 외주화 금지 대책위원회’와 함께 11월 18일 광화문광장에서 농성을 시작했다. 이들은 12월 첫째 주 고 김용균 노동자 1주기 추모 사업을 벌이는 등 문재인 정부의 생명안전제도 개악 저지 투쟁을 계속 이어간다.

“다 죽어도 산재급여 나오는데 뭐가 문제냐?”

레이텍 사장, 통근 차량에 안전띠 대신 바지 허리띠 설치 ... 부당하고 판정, 체불임금 지급 거부

“출퇴근하다 전원 사망해도 산재급여 나오는데 뭐가 문제냐?”

금속노조 서울지부 동부지역 지회 레이텍코리아분회 조합원들이 서울과 안성 사이를 오가는 회사 출퇴근 차량의 안전띠가 없는 좌석에 대한 조치를 요구하자 임태수 사장이 한 말이다. 임태수는 안전띠가 없는 차량 좌석에 등산바지 허리띠를 놔두고 안전띠를 설치했다며 조합원들을 우롱했다.

금속노조 서울지부는 11월 22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앞에서 ‘체불임금, 부당노동행위 레이텍코리아 임태수 사장 구속 처벌 촉구 대회’를 열었다. 레이텍코리아분회는 이날 서울지검에 ‘임태수 사장의 불법행위에 대한 신속한 구속 수사를 촉구하는 진정서’를 제출했다.

이필자 레이텍코리아분회 수석대의원이 40-50대 여성 노동자들이 대부분인 분회 조합원들의 노동기본권이 어떻게 짓밟히고 있는지 증언하는 진정서를 읽어 내려갔다.

임태수는 노동자들이 노조를 만든 지 불과 두 달 뒤 서울공장을 안성으로 이전했다. 조합원들은 “2013년 낡아빠진 봉고차를 타고 안성으로 출퇴근하던 경부고속도로는 위험의 롤러코스터였다”라고 증언했다.

6개월 파업 투쟁으로 2014년 서울에 노사 합의로 작업장을 마련했다. 노사 합의했지만, 임태수는 “내가 밥을 사면 메뉴는 누가 결정해야 하나?”라며, 노조가



반대하는 상가건물 안에 있는 창문도 환기시설도 없는 비좁은 사무실을 임대했다.

최저임금을 받는 여성 조합원들은 추운 겨울 복도에서 밥값을 아끼려고 싸운 도시락을 먹어야 했다. 분회가 최소한의 휴게실 제공을 요구하자, 임태수가 작업장에 음식물 반입을 막았기 때문이다. 조합원들은 그때 삼켰던 서러운 밥알을 지금도 잊지 못한다고 했다.

창문 없는 겨울 복도에서 찬밥 삼켜

다시 반년도 안 돼 임태수는 공장을 다시 안성으로 이전하겠다고 하면서 항의하는 조합원은 징계하겠다고 협박했다. 2015년 여름, 조합원들은 불별대위 속에서 71일 동안 서울노동청 앞에서 노숙 농성을 벌였다. 이필자 대의원은 이때 흘린 땀은 여성 노동자들의 피눈물이었다고 했다.

힘든 농성 투쟁으로 2015년 9월 드디어 조합원들은 공장 일방 이전을 철회시켰지만, 임태수의 폭언, 폭행을 동반한 부당노동행위는 여기서 끝이 아니었다. 2018년 1월 29일 포장부를 일방 폐쇄하고 10년 넘게 포장업무만 해온 조합원들을

영업부로 강제 전환 배치했다. 포장부에서 일하는 여성조합원들은 모두 금속노조 조합원들이다.

임태수는 이즈음 레이블텍이라는 회사를 만들었다. 분회에 따르면 임태수는 당시 영업부 직원들을 모두 권고사직으로 해고한 뒤, 전 영업부 과장이 운영하는 영업대리점(S&J LETECH)으로 보내려고 했다.

영업부를 외주화해 영업이익을 챙기고, 빈 영업부 자리로 분회 조합원들을 보내 영업실적을 트집 잡아 금속노조 조합원들을 제 발로 나가게 하려는 꿈을 부렸다. 분회는 레이블텍은 레이텍코리아를 폐업할 경우 계속 사업을 유지할 위장 업체 성격이 강하다고 지적했다.

임태수는 올해 4월 8일 포장부 여성조합원들을 모두 해고했다. 그나마 서울지방노동위원회가 부당해고와 부당노동행위라고 판결했지만, 체불임금은 전혀 주지 않고 있다.

임태수는 여성조합원들을 영업부로 강제 배치 전환한 2018년 2월부터 올해 4월까지 본사 출근 투쟁을 하는 조합원들에게 분 단위 임금을 지급하겠다고 1분에 해당하는 임금만 지급했다. 임태수 사장은 부당배치 전환 기간과 부당해고 기간 주지 않은 체불임금 지급을 모두 거부하고 있다.

체불임금으로 생계의 고통을 받는 레이텍코리아분회 여성조합원들은 오늘도 위험천만한 출퇴근 차를 타고 서울과 안성을 오가며 투쟁을 계속하고 있다.